

본문에서 발견하기

-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은 어디입니까?

-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첫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두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누구입니까?

-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 교회를 어떻게 충만하게 하셨습니까?

- 본문에 나타난 복음은 무엇입니까?

적용하기

-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붙잡고 놓치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변화시켜야 할 태도나 습관은 무엇입니까?

지난 주 말씀묵상 (에베소서 1:18-19)

-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함이고, 둘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기 위함이고, 셋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거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며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는 어떤 소망으로 불러주셨습니까.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할 때, ‘부르심’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라면, ‘소망’은 미래를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 이 소망의 내용이 바울이 간구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것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로 우리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고, 우리가 받게 될 어떤 기업, 즉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축복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그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받을 기업이 영광의 기업이든지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 우리가 앞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과 끝을, 출발과 완성을 온전히 이루고 오고 계십니다.
-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구원이 영광의 완성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구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능력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미래의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를 완성하실 뿐만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초점은 바로 능력에 있습니다.
- 바울이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것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이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